

| 17일 Market Index | | | |
|------------------|----------|-------------|---------|
| ↑ 코스피 | 2610.69 | ↑ 코스닥 | 743.51 |
| | (+44.33) | | (+9.25) |
| ↑ 금리 (연이자율) | 2.601 | ↓ 환율 (원/달러) | 1448.60 |
| | (+0.005) | | (-5.20) |

엔비디아 GTC 2025
젠슨 황 입에 쏘린 눈
삼성 HBM 공급 촉각
02



MBK 여파에 PEF '직격탄' 투자 쾅쾅, M&A도 찬바람

PEF, 메기인가 약탈인가

흡플러스 사태에 부정여론 확산
대형 M&A 매물 줄줄이 고전
운용사 자격강화·LBO 제한 등
당국, PEF 규제 논의 급물살



챗GPT로 생성한 '두 얼굴의 사모펀드'.

사모펀드(PEF) A사는 프로젝트 펀드 조성 작업을 접었다. 2000억 원대 자금을 조성해 인공지능(AI) 관련 업체에 투자하려 했지만, 최근 MBK파트너스가 흡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투자자들이 한 발을 뺀 상황이다. 여기에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치면서 '큰손'인 각종 공제회와 은행, 캐피탈 등을 움츠러들게 한다. A사 관계자는 "AI 시장이 급성장하는 데다 작년에도 200% 매출 성장을 이룬 회사여서 무난하게 투자 자금을 모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MBK 사태의 파장이 예상보다 큰 것 같다"면서 "가장 큰 걱정은 시장 참여자들이 자본시장의 한 축이 아니라 '포식자', '탐욕의 약탈자' 썸으로 여기는 문화가 짙어질까 걱정"이라고 했다.

흡플러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사태와 자산시장(주식) 약세로 투자 업계에 매서운 꽃샘추위가 불고 있다. 인수·합병(M&A) 매물이 넘쳐나지만, 위축된 투자 심리로 업계에서는 "딜(거래)이 사라질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관련기사 3면〉

17일 투자은행(IB)과 재계에 따르면

현재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나 잠재적 매물로 꼽히는 조 단위 기업은 ▲ CJ제일제당 바이오그린사업부(6조원) ▲ DIG에어가스(5조원) ▲ 롯데카드(3조원) ▲ HPSP(2조원 6000억원) ▲ 롯데손해보험(2조원) ▲ SK아이이티테크 놀로지(1조 6000억원) ▲ 프리드라이프(1조원) ▲ 모던하우스(1조원) 등이다.

이처럼 매물이 쏟아지고 있지만, M&A 시장은 조용하다. 물밑 움직임만 있을 뿐이다. 사고팔려는 당사자의 접촉은 있지만, 정작 인수확정서에 도장을 찍은 기업들은 나오지 않고 있다.

시장 참여자들은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현금을 보유한 기업들이 M&A 시장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데다, 인수 후보군인 PEF 역시 MBK의 연이은 잡음(흡플러스 기업회생 절차, 영풍과의 고려아연 적대적 M&A)으로 사회적 시선이 좋지 않은 터라 매물로 나온 기업들의 새 주인 찾기가 더욱 어려워 것으로 본다. 여기에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까지 통과돼 M&A 시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PEF 업계의 한 관계자는 "MBK 때문에 올해 장사 접어야 할 판"이라며 원망의 화살을 날린다.

PEF에 대한 여론의 부정적 인식은 정치권의 창끝이 PEF를 향하게 만들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몇몇 의원실에서는 PEF의 투자 투명성 강화, 투자 기간과 구조조정 방식에 대한 규제, 노동자 보호 장치 마련 등을 담은 법안을 논의 중"이라고 귀띔했다.

당장 국회 정무위는 18일 여야 합의로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및 흡플러스 공동 대표, 조주연 흡플러스 공동 대표,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 강경모 흡플러스 임점협회 부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김병주 회장은 해외 출장 때문에 17일 출국한다는 이유로 정무위 증인참석을 하지 않는다.

PEF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확산으로 금융 당국도 버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 사모펀드 운용사 자격 요건 강화 ▲ 투자자 보호 및 정보 공개 의무 확대 ▲ 차입매수(LBO) 제한 등을 감시 항목에 넣었다.

IB업계의 한 임원은 "흡플러스 사태는 MBK의 패착으로 볼 수 있다"면서 "연기금·공제회 등 큰 손들이 보수적으로 돌아설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나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MBK 역외 탈세의혹과 외국인 논란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면서 "이 정도면 민폐라 할 수 있다"며 불멘소리를 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매서운 꽃샘추위

꽃샘추위가 찾아온 17일 오전 서울 중구 퇴계로에서 두꺼운 옷을 입은 시민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뉴스1

JY "삼성다운 저력 잃었다 경영진부터 통렬히 반성을"

삼성전자 쏘계열사 임원 세미나 이재용 회장 '사즉생 각오' 당부

삼성의 위기관이 확대되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이 임원들에게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존의 문제'라며 '사즉생의 각오'를 강하게 당부했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최근 열린 임원 대상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 회장의 메시지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지난달 말부터 삼성전자를 비롯한 전 계열사의 부사장 이하 임원 2000여명을 대상으로 '삼성다운 복원을 위한 가치 교육'을 하고 있다. 교육에서는 고(故) 이병철 창업회장과 고 이근희 선대회장 등 오너 일가의 경영 철학이 담긴 영상이 상영됐다.

삼성이 전 계열사 임원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하는 것은 2016년 이후 9년 만이다.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임원 대상 교육을 실시해오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됐던 2017년부터 세미나를 중단했지만, 올해 전방위적 위기를 맞아 부활시켰다.

실제 삼성의 '위기'는 지난해 사업보고서에서 수치로 확인됐다. 삼성전자는 주력 사업인 메모리 반도체 D램을



비롯해 TV,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 전반적인 사업 부문에서 모두 점유율이 떨어졌다.

이 회장은 영상을 통해 "삼성다운 저력을 잃었다"며 "경영진부터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공박했다.

또 "중요한 것은 위기라는 상황이 아니라 위기에 대처하는 자세"라며 "당장의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술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이 회장은 그간 "기술 중시, 선행 투자의 전통을 이어 나가자. 세상에 없는 기술로 미래를 만들자", "첫 번째도 기술, 두 번째도 기술, 세 번째도 기술"이라며 기술 경쟁력을 강조해왔다.

세미나에서는 교수 등 외부 전문가들이 외부에서 바라보는 삼성의 위기 등을 주제로 집중 강연했다. 이 자리에서는 "실력을 키우기보다 '남들보다만 잘하면 된다'는 안이함에 빠진 게 아니냐" "상대적인 등수에 집착하다 보니 질적 향상을 못 이루고 있는 것 아니냐" 등의 지적도 잇따랐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OECD, 韓 성장률 전망 2.1%서 1.5%로 하향

불과 3개월 만에 0.6%p 내려 "예상했던 것보다 악화될 전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증가 폭이 1%대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종전(지나해 12월) 전망보다 무려 0.6%포인트(p) 낮춰 잡았다. 이는 12·3 계업 등의 한국 정치상황이 반영된 수치다.

OECD는 17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제시했다. 불과 3개월 전 수치(2.1%)에서 0.6%p나 내렸다. OECD는 "한국은 성장세가

유지되겠지만, 전에(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악화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탄핵정국에 따른 정치 혼란을 염두에 둔 하향조정인 것으로 풀이된다.

OECD의 예측치는 기획재정부(1.8%)나 한국은행(1.6~1.7%), 국제신용평가사 피치(1.7%)의 전망치보다도 낮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2.0%를 예측했으나 해당 보고서에서 탄핵정국에 따른 영향은 반영하지 않은 바 있다.

우리나라 하향 조정 폭은 OECD가 언급한 주요국 가운데 멕시코(-2.6%p) 다음으로 컸다. 일본(-0.4%p), 미국(-0.2%p) 등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역시 내렸지만 한국에 비해선 폭이 작았다.

OECD는 올해 전 세계 GDP가 3.1%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종전 전망(3.3%)에서 0.2%p 하향 조정했다. 주요 20개국(G20) 예측치도 0.2%p 내린 3.1%를 제시했다.

세계 경제 위험요인으로는 무역장벽 확대를 비롯해 인플레이션 지속 등을 꼽았다. OECD는 무역 장벽 확대에 따른 글로벌 경제의 분절화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소비자물가 상승에 따라 통화정책이 제약되고 및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우려도 제기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메트로 한줄뉴스



▲최 대통령 권한대행 "유휴 국유재산 활용 청년 창업지원 시설 지속 확대" /사진 뉴스1
▲야 5당, "만장일치尹 파면하라" 시민단체와 시국선언

▲우원식 "개헌 여건 무르익어... 여야 합의할 방안 압축돼야"
▲권성동 "미국이 민주당 불신해 민감국가 지정했다는 설 있어"

▲양기대 "윤석열은 헌법재판소, 이재명은 법원 판단 존중해야"
▲경실련, '유산취득세 전환' 기재부 비판... "경제적 불평등 심화할 것"